

현지 언론 발효식품(김치) 안전성위험 기사(15-3/15.7.24)

애로사항

2급



본사 관련부서

식품수출부

유관기관

농식품부/ 식약처

문의처

도쿄지사 이세호 과장
070-4617-2689/genilee82@gmail.com

구 분

주요 내용

비고

사안개요

- 현지 인터넷 뉴스 등에서 김치 등 한국의 발효식품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뉴스를 한국 언론사(중앙일보)의 기사를 인용 및 번역하여 보도(7.21)
 - 중앙일보 원 기사 : http://mnews.joins.com/news/article/article.aspx?ctg=&Total_Id=18269217
 - 현지언론 http://www.excite.co.jp/News/chn_soc/20150721/Xinhua_23969.html
<http://news.livedoor.com/article/detail/10372167/>
<http://headlines.yahoo.co.jp/hl?a=20150721-00000027-rcdc-cn>
- 현지 김치수입업체에 따르면, 유통업체 및 소비자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며, 대응에 애로사항 발생

착안사항
및 시사점

- 현지 언론사의 기사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보도하고 있으며,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제닉아민이 암을 유발하고, `10년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는 등,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현지에서 해명에 애를 먹고 있음
- 해당 기사에는 해당 발암물질은 저온발효를 할 경우, 줄어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온발효를 하고 있는 김치 제조업체들은 해당 사실을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
 - 해당 식약처 조사는 `10년 자료로, 당시에 비슷한 기사가 나와 김치 수입업체들이 해명한 바가 있음. 비슷한 기사가 `15년도에 다시 나오는 등 김치 업체들의 불만이 증가중임
- 안전성 관련 기사는 구체적인 업체명, 상품명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 전체 한국산 수입식품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계기관의 정확한 정보공개 가 필요함

※ 긴급도평가 : 1급 - 사안이 중대하고, 한국식품 전체로 파급영향이 커 본사 및 유관기관의 즉시 대응 필요
2급 - 사안이 중대하지만, 한국식품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은 미미하여 향후 양상 주시 필요
3급 -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으나,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 필요
4급 -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,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하나, 향후 이슈화될 가능성 있음